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열일곱 번째 시

또 한 사람은 위에서 말한 사람의 친척입니다. 그는 어떤 새 신자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듣고 자기도 입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우선 자기 집의 우상들과 미신을 치워버리기 위하여 귀신 단지를 힘껏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런데 단지는 깨지지 않고 땅 위에서 데굴데굴 굴러갔습니다. 이때 그는 성호를 긋고 나서 그 단지를 다시 집어 들고, 이번에는 별로 힘을 들이지도 않고 내던졌는데 단지는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새 군인은 모든 미신 물건들을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온순하던 말이 별안간 광증을 부려 사람을 물어버렸습니다. 이 착한 예비 교우는 귀신이 말에 접한 줄로 여기고 너무 격분하여 말을 당장 죽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귀신의 요상스러운 장난이 똑 그쳤습니다. 그 예비 교우는 더욱 굳센 신앙과 열심으로 세례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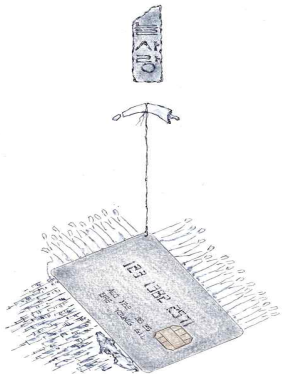
또 어떤 읍에 사는 한 사람은 몇 년 전에 입교하였는데, 그의 모친과 아내가 결사 반대하며 날마다 뿔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항구심으로 신앙 안에 버티어 내면서 열심히 수계하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계속 뒤쫓아다니면서 다른 때보다 더욱 큰 소리로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착한 새 신자 아들은 귀찮아서 밭으로 피해 가서 하루 종일 굶어 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함지에 음식을 담아 가지고 굶주리고 고달픈 농사로 지친 아들한테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길에서 미끄러져 땅바닥에 별령 나자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에 이고 가던 함지까지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습니다. 그런데 밥그릇도 말짱하고 음식도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머니는 제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다. 아들이 나보다 옳다. 내가 공연히 아들을 괴롭게 들볶았다. 그 별로 나는 낙상하여 중상을 입었으나 하느님을 공경하는 내 아들이 먹을 음식만큼은 쏟아지지 않았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감동되어 자기도 교우가 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목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유혹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그만큼의 무게로
나를 당기는
많은 유혹들.

딱 그만큼의 힘으로.

여기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성 베드로 성당의 baldachin(Baldachin, 천개(天蓋))



지인 로렌조 베르니니(Gianlorenzo Bernini, 1598년 ~ 1680년)
1623년 ~ 1634년 제작



교황님이 미사를 집전하시는 대제단을 수용하고 있으며, 천개 바로 아래(내부)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다.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장식의 기둥(솔로몬의 기둥이라 부른다)은 높이가 28m로, 기둥 위에는 사람 키의 두 배가 넘는 거대한 청동 천사 조각상이 올려져 있다. 이렇게 보는 이를 압도하는 이 공간은 미사를 통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있는 지상의 공간을 천상의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연중 제26주일: 제주해군 박재술 신부

◆ 교구장 동정

- 태 풍(제28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9월 29일(주일)

◆ ‘군중의 시간’ 인니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환희와 기쁨을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